

해남 올해 현안과제 추진 '속도'

지난해 말 민선7기 공약 이행률 64% 기록
부서별 37개 전략목표 설정 총력 대응키로

해남군이 민선 7기 반환점에 돌입한 올해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업무성과 목표 보고회를 갖고 주요공약을 중심으로 한 군정 중점과제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고회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민선 7기 공약 5대 분야 65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63.9%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 해 3분기에 비해 13.6% 향상된 추진율로 17개 세부실천과제가 완료됐고, 48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강화와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인 해남미남 축제 개최,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택시 운영,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남도광역

추도공원 명품화 사업 등 역점 추진 과제가 대거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를 비롯해 원스톱민원행정 처리 시스템 구축, 군민 배심원제 도입, 시니어클럽 설치 등 세부과제가 완료될 전망이다.

해남군은 특히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부서별 성과 제고를 위해 37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4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해남미소의 매출액을 10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208만명의 관광객은 4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0억원을 발행한 해남사랑상품권은 200억원까지 발행하고, 친환경농산물 면적도 100



해남군은 최근 2020년 업무성과 목표 보고회를 갖고 주요공약을 중심으로 한 군정 중점과제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남군 제공

ha 이상 늘어난 1,300ha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일자리 400개를 비롯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2,000명, 스포츠마케팅 연간 방문객 20만명 달성 등 목표도 세웠다.

또 매니페스토 2년연속 SA등급 유지와 SNS 구독자 3만명 확보, 종합정령도 접수 지속적 향상, 공모사업 80건·국비

확보 900억원 등 군민소통과 신뢰받는 행정 기반 구축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0년에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속도를 한층 높이고, 부서별 업무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 관광홍보 영상·사진 연중 공모

월별 군정 아이디어도 접수

해남군이 '2020 해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해남 관광지에서 촬영한 응원 메시지 등을 담은 10초 내외의 영상과 사진을 연중 공모한다.

공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고, #2020해남방문의해 #gogo해남 #해남여행 #땅끝 #어디까지가봤니 #travel #roadtrip 해시태그를 달아 해당 게시글을 스킵하거나, 게시물 주소를 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게시글에는 해남에 방문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월별 공모 제안도 실시한다. 2월에는 해남사랑상품권의 구매촉진

과 가맹점 확대, 상품권 유통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모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해당 부서 자체 평가와 해남군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상등급이 결정되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상등급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노력 제안으로 선정 시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청·접수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기획실,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평화광장 '복합 문화관광 거점' 탈바꿈

50억원 투입 구조개선 추진
춤추는 바다분수 등 리모델링

춤추는 바다분수로 연간 4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목포 평화광장이 세계적 수준의 복합 문화관광·해양레저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보행자 안전도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해변과 광장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서남권 최고의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차 사업으로 18억원을 확보해 관광객들과 상권 강화를 위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

이어 관광특구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휴식공간을 늘리는 등 녹지 및 경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춤추는 바다분수도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분사장치 추가 및 분사 높이 확장,



연간 4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목포 평화광장의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시 제공

레이저 확장, 관람석 확대 등 시설물 업그레이드 및 토요 불꽃페스티벌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바다분수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상무대를 설치한 후 바다분수 쇼에 해양 목포의 낭만과 감성을 품은 문화예술공연 및 해상불꽃 쇼를 복합화해 상시 진행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분수쇼에 불꽃쇼와 공연이 융합된 국내 최초의 복합문화 콘텐츠로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2024년까지 평화광장에 해양테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상스키, 바다수영 같은 해양레포츠와 요트, 보트 등 체험이 가능하고, 해상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신혼부부 출산 장려금 지원
만49세 이하 200만원 분할 지급

진도군이 신혼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대상이며 총 200만원을 2회로 분할해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다.

진도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후부터는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관·단체·기업 등과 함께 하는 '인구 늘리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 읍·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유공기관 전 입장려금 제도도 확대·시행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27일 "지역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향후 지역 소멸까지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며 "장기적으로 인구 3만5,000명까지 증가를 목표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군은 최근 내년 국고 현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체제로 전환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내년 국고예산 확보 총력

신규사업 보고회...35건 1조2천억 규모 발굴

신안군이 내년도 국고 현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체제로 전환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박종열 부군수 주재로 '2021년도 국고 현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굴한 신규 국고사업은 35건에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신안군은 내년 목표로 설정한 예산 8,000억원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국고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사업은 SOC 분야의 경우 비금·추포, 도초·하의, 신의-장산 연도 교 건설과 하수도정비사업 등이며, 어선구입 임대사업, 각종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도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 압해-화원 국도77호선 개설에 1,000억원과 지방어항건설사업 154억원, 발기반정비사업 69억원, 각종 공원조성사업에 39억원 등 계속 사업 국고 확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국고 건의 사업의 확정시 까지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거리 등 대규모 국고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전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도 신규 15건에 총사업비 659억원 규모로 발굴해 최종 반영될까지 공을 들이고,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신안 지도읍, 고독사 지킴이단 교육

신안군 지도읍은 최근 회의실에서 고독사 지킴이단 교육을 갖고 '고독사 제로화'를 선언했다.

지킴이단은 마을 이장과 청년회, 자율방범대 등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됐다.

교육은 '고독사 제로!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사각지대 독거노인 돌봄 기법과 고독사 지킴이단 우수사

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적극적인 대처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해 현재 27명으로 구성된 고독사 지킴이단은 돌봄 대상 어르신 1대1 케어를 통해 안전확인 및 발견, 친구 역할 등을 특별히 해내고 있다.

황성주 지도읍장은 "고독사 지킴이단이 따뜻한 이웃을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2천만원 기부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은 최근 목포 MBC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해 달라며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위 의장은 전남 아나소사이어터 80호 회원이며, 지난해 2,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2,000만원을 기탁해 따뜻한 사랑의 후원을 이어갔다.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돼 강진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위 의장은 "나눔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강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위 의장은 다문화어르신 고향 보내주기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10년째 지원해 오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명현관 군수,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장특독'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과 현장특독(Talk Talk)을 가졌다.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현장특독은 군 정책 추진과정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 군수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근무 소감을 비롯해 군정 운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

행했다.

2020 해남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방안과 인구유입 정책,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명 군수는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긍정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꿈을 펼치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한 시책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